

타지마할

(인도)



이 묘당은 아무나 강 오른쪽 제방의 약 17ha에 이르는 광대한 무굴 제국의 정원에 있다. 분리된 첨탑 4기가 경계를 이루며 좁은 길이나 수로 때문에 만들어진 십자형의 원근법(open perspectives)을 통해 파종형 돔(bulbous dome)을 얹은 팔각형 구조물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. 놀라울 정도로 시각적인 순수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앙각(아래에서 올려다본 각)은 인공적인 장식의 반짝거림으로 거의 다르게 변형되어 보인다. 이 장식은 건물의 주요 자재인 흰 대리석에 새겼는데 그 색이 선명하게 나타난다. 또 아라베스크풍의 꽃 장식과 띠 모양의 장식 그리고 다색의 피에트라 듀라(piетра dura, 대리석에 무늬를 박아 넣는 기법)로 외관을 장식한 캘리그래피(calligraphic) 비문으로 반짝반짝 빛난다.